

# 순천시 “3대 특구” 발판 글로벌 문화산업도시 도약

문화 특구, 도시 전체에 문화 콘텐츠...가든콘 페스타 등 추진  
기회발전특구, 이차전지·K-디즈니 사업 파격 인센티브 지원  
교육발전특구, 지역 공교육 강화·인재 양성 목표 교육모델 수립

문화특구,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 특구 지정으로 순천시의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를 향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K-디즈니 순천’을 비전으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국립순천대학교 글로벌대학 30 선정에 이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문화특구와 기회발전특구, 그리고 교육발전 특구 지정까지 이뤄낸 것이다. 이로써 미래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순천의 청사진이 더욱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다.

◇교육발전특구가 키워, 기회발전특구에서 일하고, 문화특구에 기여하는 ‘빅픽처’

순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문화특구 사업인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예비 지정되어 올 12월 본지정을 앞두고 있다. 시는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도시 전체를 문화콘텐츠로 옷 입히고 순천이 꿈꾸는 문화산업 메카의 청사진을 보여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전 선포의 장이자 산업전·애니 콘텐츠 축제가 될 ▲글로벌 가든콘 페스타를 가을 중 개최하고, 지역 자원과 역사를 활용한 ▲우리동네

캐릭터 시범사업, 찾아가는 정음음악회 등 연관 사업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광양·여수와 협력하는 이차전지 분야, 순천시 단독으로는 ‘K-디즈니 순천’을 비전으로 하는 문화콘텐츠 분야를 각각 신청해 선정됐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존의 하향식, 규제완화 수준의 특구가 아닌 지방 중심의 상향식 계획 수립,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수해야 할 특구로 꼽힌다.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지방시대 양대특구를 이루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공교육 강화와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방정부와 교육청·대학·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 고유의 교육모델을 수립하는 체제다. 순천시가 교육청과 협의해 제안·선정된 교육발전특구 모델에는 ‘K-디즈니 순천’ 비전과 공교육 연계, 문화콘텐츠 산업 인재 양성 등이 포함되어 기회발전 특구에 전문 인력풀(Pool)을 공급할 예정이다.

◇ 3대 특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글로벌대학

30 연계로 시너지 ‘폭발’  
3대 특구에 앞서 순천시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순천대학교 글로벌대학 30 등 정부 역점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두 사업은 3대 특구와 함께 순천이 쓰아 올린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 발사체에 추진력을 달아 줄 전망이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로 확보한 390억 원은 기회발전특구로 투입되어 콘텐츠 기업 이주와 정착을 촉진하고, 창작기지와 제작기지를 이원화해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지식학이 협력해 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대학 30 사업은 순천에 문화콘텐츠 캠퍼스를 두고 웹툰·애니메이션 아카데미 운영, 산학공동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면서 교육발전·기회발전특구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전망이다.

◇ 지방소멸 대응할 완전히 새로운 중소도시 모델 ‘K-디즈니 순천’

순천시가 순천만과 정원을 넘어 미래 먹거리로 문화콘텐츠 산업을 낙점한 것은 성장성과 청년 종사자 비율이 높은 데다, 골목이 없고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지식 산업이기 때문이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문화콘텐츠 사업이 정주·교육·경제 전반에 스며들어 도시 전체로 확장되는 모습을 알기 쉽게 표현한 비전이 바로 ‘K-디즈니 순천’이다.

디지털 시대, 순천의 독보적이고 아날로그적인



노관규 시장이 지난 4월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문화산업도시 순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연 자원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원천으로 하는 문화산업을 채워 완전히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순천시의 치밀한 계획 아래 점차 구체적인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동지가 없어

디에도 자리 잡지 못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 있다”면서 “정원과 박람회로 구축한 기동 안에 문화산업으로 촉촉한 속살을 채워, 먹이와 동지가 모두 있는 새로운 중소도시 모델을 순천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광양으로” 5만명 서명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사업  
서명운동 6개월만에... 13일 기념식

광양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기부사업’으로 선정된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의 범시민 서명운동에 5만 명이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를 기념해 오는 12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서명 참여자 5만 명 달성은 제자리 찾기 추진위원회와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6개월 만에 이뤄졌다. 기념식은 축하공연, 홍보 영상 상영, 추진 경과보고, 제자리 찾기 건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선포식 이후 범시민 서명운동, 홍보 캠페인, 도자기로 재현하는 쌍사자 석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의 문화유산을 되찾는 운동을 알리고 제자리 찾기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1931년 일제강점기 광양을 떠나 1932년 경 북궁 자경전 앞으로 옮겨졌고, 해방 이후 1959년 경무대, 1960년 덕수궁으로 이전했으며 1962년 국보 제103호로 지정됐다. 이후 1986년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정원으로 옮겨 전시되다가 1990년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향후 시급 조사와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문화유산은 제자리에 있을 때 진정성이 있고,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다”면서 “광양시의 자랑스러운 쌍사자 석등이 하루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추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께서 동참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여수시 공약이행률 66.6% ‘순항’

정기명 시장 추진상황 보고회...도시관리 정비 등 35개 사업 완료

여수시는 올 상반기까지 민선8기 공약 67%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6일 정기명 시장 주재로 ‘민선 8기 하반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6월 말 기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7대 분야 93개 사업 중 35개 사업이 완료돼 공약 이행률 66.6%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올해 상반기 대비 3.7% 상승한 것으로 공약 실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가 상반기에 추가 완료한 공약사업은 ▲여수·문수지구 활성화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여수-거문항로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 사업 확대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 ▲남산공원, 문화예술행사 대표 공원 활용 등 5건이다.

시는 공약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매 분기 점검하여 시장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회의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약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공약 이행 여부는 시장에 대한 신뢰의 척도이다”면서 “임기 내 남은 58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 주관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전남도 내 시 단위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SA’를 획득했으며, 지난날 치러진 ‘매니페스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 “비브리오팀 주의하세요”

여수시, 수산시장 안전 점검

여수시는 여름철 기온·수온 상승으로 비브리오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수 수산물특화시장과 수산시장을 우선으로 ▲어패류 및 조리기구 충분한 세척 여부 ▲횃감용 칼·도마 구분 사용 ▲수족관 물 수시 교체 ▲냉각기 가동 및 살균소독 ▲생선회 조리 종사자 위생복·마스크 착용 등을 확인하고, 식중독 예방수칙과 안전한 수산물 취급요령을 설명했다.

또한 이날 판매업소 수족관수를 채취하여 보건소 임상병리실에서 비브리오팀 3종(장염비브리오, 비브리오패혈증, 비브리오펠레라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곡성 청년에 월 주거비 최대 20만원

지역 주소 둔 18~45세 6명 1년 지원...23일까지 신청

곡성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6명을 모집한다.

곡성지역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1979년~2005년 출생자) 청년이다.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일을 해야 한다. 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전세 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비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23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신청자가 모집원보다 많을 경우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더위 잊은 ‘섬진강 문화레저파크’

구례군 주최 250여명 참가...체험형 예술·레저 프로그램 인기



구례군의 ‘섬진강 문화레저파크’ 행사가 지난 3일 구례군 서시천 체육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전라남도·구례군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제공했다.

행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50여 명의 청소년 및 주민들이 함께했다. 특히 오후 4시부터 서시천에서 진행된 ‘카약으로 보물찾기 프로그램’은 더위를 피하려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두차례의 행사에 이어 세 번째이며, 행사 장소인 서시천 체육공원은 구례군

의 새로운 문화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서시천의 자연 풍광을 배경으로 펼쳐진 다채로운 체험형 예술 프로그램과 생활레저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그중 ‘대지의 미술 프로그램’은 나뭇가지·돌·꽃잎 등 자연물을 이용하여 나만의 아트를 만드는 환경예술 체험형 교육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외에도 야외 필라테스 수업, 걸거리 레저 대회 등 예술·문화·레저를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이뤄졌다. 다음 섬진강 문화레저파크 행사는 8월 31일, 9월 28일, 11월 2일 열릴 예정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여수시, 2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 접수

여수시가 개별주택가격(2024년 6월 1일 기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이달 26일까지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333호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기 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누리집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접수된 개별주택은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열람과 의견제출이 마무리되면 9월 26일 주택가격을 최종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정과 과표팀(061-659-3575)에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